



조선대 치매연구단 '알츠하이머 포럼'

조선대학교광주치매코호트연구단(단장 이진호)은아시안치매연구재단(이사장 김성진)과 ㈜피플바이오(대표 강성민)와 공동으로 '알츠하이머병 신경과학포럼'을 지난 3~5일 제주에서 개최했다. (사진)

6일 조선대에 따르면 이번 포럼에는 치매의료 분야 국내 최고의 임상의를 비롯한 뇌과학자, 의공학자, 산업계 전문가 등 치매 관련 주요 전문가 200여 명이 한자리에 모여 치매 극복을 위한 각종 의료기술 개발 방안에 대한 열띤 토론을 펼쳤다.

올해로 6회째를 맞이한 알츠하이머병 신경과학포럼에서는 '조기예측과 예방을 통한 치매 극복'을 주제로 관련 분야 전문가들이 다양한 최신 연구성과를 소개하고, 국내 기술로 개발된 치매 조기 예측기술 및 치료제의 실용화를 이루기 위한 임상시험을 앞당기고 성공시키기 위한 협력 방안과 전략을 다각도로 모색했다. 노병하기자



NH농협은행 전남본부, 신입행원 채용

NH농협은행 전남본부(본부장 정재현)는 6일 전남본부 2층 대강당에서 지역출신 6급 신입행원 20명에 임용장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사진)

신입행원들은 지난달 16일 최종 합격 후 농협 청주교육원에서 2주간의 연수를 받았으며 이날부터 영업점에서 선배직원과 1:1 직무 멘토링을 받으며 첫 근무를 시작했다.

NH농협은행 신규채용은 연령·성별·학력·전공 등에 제한을 두지 않는 블라인드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올해 전국 480명을 공개 채용했다. NH농협은행은 매년 청년실업 해소와 지역사회 동반성장을 위해 시·도 지역인재를 우선 채용하며 지역 대표은행으로서 역할을 수행해왔다.

정재현 본부장은 "대·내외 어려움과 변화하는 금융환경 속에서 신뢰를 줄 수 있는 행원으로 성장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은지 기자



조진웅·이성민 '대외비' 개봉 첫 주말 1위

누적 관객 49만여명 돌파 2위 '...칼날' 3위 '슬램덩크'

영화 '대외비(사진)'가 일본 애니메이션 영화 '귀멸의 칼날'을 힘겹게 제치며 개봉 첫 주말 박스오피스 1위에 올랐다. 하지만 예매 관객수 순위에선 6위로 떨어지며 앞으로 흥행을 장담할 수 없게 됐다. '더 퍼스트 슬램덩크'는 개봉 9주차 주말에 10만명이 넘는 관객을 불러모으며 역대 국내 개봉 일본 영화 흥행 신기록을 세웠다.

'대외비'는 지난 3~5일 25만7049명(영화진흥위원회 기준)이 봐 주말 박스오피스 정상에 올랐다. 누적 관객수는 49만6719명이다. '대외비'는 개봉 첫 주말 박스오피스 1위 자리를 가까스로 따냈다. 영화는 개봉 첫 날이던 지난 1일 18만명이 넘는 관객을 끌어모으며 쾌조의 출발을 했으나 뒤이어 개봉한 '귀멸의 칼날:상현집결, 그리고 도공 마을로'에 밀리며 이를 연속 2위에 머물렀다. 그러나 토요일(4일)과 일요일(5일)에 다시 한 번 판을 뒤집으며 주말 박스오피스 정상에 서는 데 성공했다.

이 영화는 1990년대 부산을 배경으로 국회의원 선거에 나선 '전해웅'과

장막 뒤에서 정계를 좌지우지 하는 인물인 '권순태'가 대립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린다. 권순태의 입김으로 전해웅이 공천을 받지 못하게 되자 전해웅은 조직폭력배 '김필도'와 손잡고 반격을 시작한다. 이성민이 권순태를, 조진웅이 전해웅을, 김무열이 김필도를 연기했다. 연출은 '악인전'(2019)의 이원태 감독이 맡았다.

다만 '대외비'는 6일 오전 8시 현재 예매 관객수 순위가 6위(예매량 1만 2661명)로 떨어져 있어 앞으로 흥행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오는 8일 개봉하는 신카이 마코토 감독의 새 애니메이션 영화 '스즈메의 문단속'(예매량 10만6555명)이 개봉 첫 날 박스오피스 1위에 오르는 게 확실시 되는 상황에서 할리우드 스타 '뚝뚝뚝'(1만 5214명), '더 퍼스트 슬램덩크'(1만 4598명)에도 밀려나 있다.

'귀멸의 칼날:상현집결, 그리고 도공 마을로'는 주말 23만4945명이 박스오피스 2위에 올랐다. 누적 관객수는 29만9900명이다.

'더 퍼스트 슬램덩크'는 11만4806명을 추가, 누적 관객수 384만3529명을 기록해 역대 국내 개봉 일본영화 흥행 1위에 올랐다. 뉴시스



전남인자위, 인력양성 훈련과정 개발 보고회

전남인적자원개발위원회(공동위원장 박창환 전남도 정부부지사·이한철 목포상공회의소 회장)는 산업 및 교육·훈련 전문가, 훈련기관 및 실무자 등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스마트팜 전문 인력양성 훈련과정 개발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고 6일 밝혔다. (사진)

지난해 12월부터 실시한 '훈련과정 개발 전문가 회의'는 지역 산업의 맞춤 훈련을 체계적이고 구체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회의로 4회 이상의 대면 회의와 다수의 비대면 회의로 진행했다.

전남인자위 강광남 사무국장은 "산업 및 훈련 전문가들이 모여 지역 인력양성을 위해 머리를 맞댄 뜻깊은 자리였다"며 "지역 수요를 반영한 훈련과정 개발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목포=정기찬 기자



동강대-화순군, 다문화 취약계층 지원 협약

동강대학교(총장 이민숙)가 다문화 가족 등 사회 취약계층이 체계적인 학업과 취업 지원을 받아 사회 일원으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든든한 길잡이가 된다.

6일 동강대는 최근 화순군청 회의실에서 '다문화 가족·취약계층 대학진학 및 취업지원'을 위한 상호 협약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사진) 이날 협약식에는 이민숙 총장과 구복규 화순군수가 참석해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아낌없는 지원을 약속했다.

동강대는 우리 사회 다문화 학생 비중이 커짐에 따라 다문화 가족 자녀들의 사회 적응과 학업 등을 도우며 지역사회 소통과 화합에 앞장서고 있다.

이번 화순군과 협약식에 앞서 지난해 12월 광산구 가족센터에 이어 1월 서구가족센터와 각각 협약을 맺었다. 노병하기자



조선대병원 소화기내과 연수 강좌 성료

조선대학교병원(병원장 김경중)은 지난달 25일 의성관 5층 감동극장에서 소화기내과 연수강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사진)

6일 조선대병원에 따르면 소화기내과 박찬국 교수를 비롯해 교수, 개원의, 전공의, 의과대학생 등이 참석하여 소화기 관련 질환의 새로운 지식 전달과 정보 교류의 장을 마련했다.

이날 연수강좌는 △직장신경내분비종양(진단, 치료, 추적관찰(순천향대 의대 정운호) △간암치료방법(조선대 의대 조주연) △담도 내시경의 활용(조선대 의대 이준형) △膵양성 대장염의 올바른 추적관찰과 치료(조선대 의대 이준) △복부 팽만감의 접근과 치료(고신대 의대 김성은) △난치성 위식도 역류 질환의 평가(순천향대 의대 홍수진) 등으로 구성됐다.

특히 호남최초로 시행한 실시간 시술 영상(live demonstration) 강의는 호남지역 의료인과 최신지견을 공유하고 상생을 모색하는 자리로 큰 호응을 얻었다 노병하기자



남부소방, 구조·구급대원 전술훈련 평가

광주 남부소방서(서장 이남수)는 2023년 상반기 구조·구급대원 전술훈련 평가를 진행한다. (사진)

6일 남부소방서에 따르면 이번 전술훈련 평가는 구조·구급대원의 교육·훈련 성과측정 및 현장대응기술 교류를 통한 전문성 강화를 목표로 이날부터 3일간 소방위 이하의 구조·구급대원 63명을 대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평가항목은 일상집중훈련과 개인전술훈련 두 가지며, 개인전술훈련에서 구조분야는 로프하강 및 등반, 구급분야는 다수 사상자 중증도 분류, 심폐소생술 및 자동 제세동기 사용법을 평가할 예정이다.

이남수 남부소방서 서장은 "재난 현상이 더욱 다양해지는 현대 사회에서 소방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한다"며 "우리 남부소방서는 체계적이고 꾸준한 훈련을 통해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강주비 기자

전도연 ♥ 정경호, 키스하며 해피엔딩 '일타스캔들'

시청률 17% 종영

전도연·정경호 주연 '일타스캔들(사진)'이 시청률 17%로 막을 내렸다.

6일 닐슨코리아에 따르면, 전날 방송한 tvN 주말극 일타스캔들 16회는 전국 유료가구 기준 17%를 찍었다. 15회(15.5%)보다 1.5%포인트 올랐으며, 자체 최고 시청률이다.

이 드라마는 입시 지옥에 뒤늦게 입문한 '국가대표 반찬가게' 사장 '남행선'(전도연)과 대한민국 사교육 1번지에서 벌어진 일타강사 '최치열'(정경호)의 로맨틱 코미디다. 마지막회에선 행선이 스포츠 지도사에 합격하는 모습이 그려졌다. 행선과 치열은 키스를 나누며 해피엔딩을 맞았다. 조승우 주연 JTBC 주말극 '신성한, 이혼'은 2회 7.3%를 기록했다. 1회와 변동이 없었다. KBS 2TV 주말극 '삼남매가 용감하게' 47회는 전국 시청률 28%다. 46회(24.9%)보다 3.1%포인트 상승했다. 뉴시스



지드래곤 신곡 나오나? SNS에 "돈 벌어야" 암시

그룹 빅뱅 멤버 지드래곤(사진)이 컴백을 예고했다. 지드래곤은 6일 소셜미디어에 "돈을 벌어야. 너에게 먹여 살릴 고양이 있다"라는 글과 함께 반려묘의 모습이 담긴 영상을 게재했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신곡 나오는 거죠?" "솔로 앨범 기대됩니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지드래곤은 올해 초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를 통해 "여러 가지 다양한 활동을 통해 찾아 볼 예정이다. 앨범도 준비 중"이라며 6년 만에 솔로 앨범 발매를 예고한 바 있다. 뉴시스